

일반논문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변화하는 성착취 유비쿼터스*

이나영** · 정지혜***

〈국문초록〉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양상은 성매매의 속성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업주-알선자-구매자, 성매매-음란물-성폭력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 성거래·성산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밤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성산업과 포털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소비자가 사이트 운영자, 알선자, 업주, 성구매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성들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지지가 만들어내는 이윤창출의 연쇄 고리 속에 성매매의 불법성은 탈각되고, 거래되는 여성들은 육체적·성적·감정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 불법촬영과 신상노출 등 갖은 폭력에 노출된다. 결국 여성혐오·성매매-음란물-사이버성폭력이 연결된 장이자 맥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는 성거래의 새로운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페미니스트 섹슈얼리티 이론과 실천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주제어: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정동경제, 포르노그래피, 사이버성폭력, 맥섹슈얼라이제이션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nylee@cau.ac.kr)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kkrt21@gmail.com)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2019년 5월 22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¹⁾ ‘밤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 경찰은 ‘밤의 전쟁’ 운영총책 A씨(35세) 등 3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대전지방경찰청, 2019. 10.22).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는 2018년 9월 6일, 대전경찰청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면서 준비되었고, 같은 달인 9월 1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다시함께센터>가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고발장에서 공동고발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의 광고들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소유자, 성매매업소 운영자, 구매 남성(후기 작성자)”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과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요청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 혹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문제점으로 “업소 광고를 포함해 성매매 알선 권유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면서 성매매 수요를 조장”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다시함께·전국연대, 2018: 2-3).²⁾ 이들이 적시한 성매매처벌법 위법사항은 첫째,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소유자의 경우,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1)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따라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 사이트’, ‘성매매 후기 사이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로 통칭해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맥락에 따라 위 용어들을 혼용함을 밝힌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다시함께센터의 고발장.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 행위, 이를 통한 직접적인 성매매 실행의 조장과 알선을 들고 있고, 둘째, 업소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한 점, 셋째, 구매 남성, 즉 후기 작성자들의 경우, 실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순 광고나 홍보라 할지라도 “성매매 권유”라는 불법성 때문이다(다시함께·전국연대, 2018: 3-7). 또한 이들은 공히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및 이미지들”을 게시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고,³⁾ 광고수익과 회원확보 등을 통해 올린 수익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해 몰수·추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다시함께·전국연대, 2018: 11-12).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수사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간 후인 7월 9일, 경찰청은 ‘밤의 전쟁’ 등의 개발자 B씨(45세)를 검거하였으며, 증거자료 채증 및 사이트의 서버 백업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사이트를 전면폐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후기 글을 작성한 성매매자를 단속하고 해외 도주 중인 또 다른 운영자를 쫓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8월 27일, ‘밤의 전쟁’ 공동 운영자가 검거되었고(『한겨레』, 2019.8.27), 9월 18일에는 ‘밤의 전쟁’ 등에 광고한 성매매 업주 한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머니투데이』, 2019.9.18).⁴⁾ 수사를 진행한 대전지방경찰청 홍영선 사이버수사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성매매업소 2,213개를 광고하고 있던 국내 2위 규모의 ‘아○○○○’가 ‘밤○○○’과 같은 프레임과 같은 서버구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해, 마침내 “‘밤○○○’, ‘햇○○○’, ‘아○○○○’ 서버 14개 자료는 물론 설정파일

3)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제1항 제2호는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4)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성매매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머니투데이』, 2019.9.18).

까지 모두 삭제”하고, “등록된 도메인 66개” 삭제는 물론, “제작자 검거를 통해 마침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포털사이트 두 곳을 일거에 폐쇄했다”고 밝힌다(홍영선, 2019: 41-42).

이상의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충격을 안겨 주었다. 첫째, ‘불법 성매매 알선·구매’의 조직적 현실이다. 경찰이 밝힌 바, ‘밤의 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업소는 2,613개소였다. 서울 881곳, 경기 남부 674곳, 경기 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등이다. 이 밖에 충북 99곳, 충남 84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 등의 성매매업소다(『문화일보』, 2019.6.4). 지역별·형태별로 촘촘히 연결된 전국 규모의 성매매 업소 네트워크 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밤의 전쟁’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한다(『머니투데이』, 2019.9.18).⁵⁾

둘째, 인터넷 매개형 성매매 알선의 인적·물적 규모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만 70만 명, 성매매 후기만 21만 건이었으며, ‘밤의 전쟁’의 모태가 되는 사이트까지⁶⁾ 합치면 회원 수가 110만 명가량에 이른다고 한다(『KBS』, 2019.9.5). 경찰청이 밝힌 바, 운영자들은 2,637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30~70만원을 광고비로 받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지역별·성매매 형태별 범주를 선택해 성매매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

5) 그는 휴게텔 현관문을 잠그고 예약으로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샤워실과 암막 커튼으로 가린 방 4개에 침대를 놓아,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한다.

6) 2017년 1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2명을 붙잡았다. 이 운영자들은 2013년 10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했으나 3년여 만에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2014년 10월,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를 ‘밤의 전쟁’이라고 한다. 8월 27일 붙잡힌 공동 운영자 중 한 사람은 최초로 운영했던 사이트인 ‘아절한 밤’이 2016년 12월 단속되자 같은 플랫폼으로 ‘아절한 달리기’와 ‘밤의 전쟁’ 등으로 사이트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한겨레』, 2019.8.27).

했으며, 1일 접속 인원 10만 명, 3년간 광고비로만 약 210억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했다고 한다(홍영선, 2019: 39; 『KBS』, 2019.9.5).⁷⁾ 이들은 2013년부터 ‘아찔한 밤,’ ‘아찔한 달리기,’ ‘밤의 전쟁’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 사이트 서버는 해외(일본)에 있었고, 붙잡힌 공동 운영자 3인 이외 1명은 여전히 필리핀에 도피 중이라 한다(대전지방경찰청, 2019.5.22).⁸⁾ 경찰에 따르면, 2천 백여 개의 성매매업소 광고 글과 20만 개가 넘는 성매매 후기 글을 갈무리하고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도메인은 일본의 O회사, 1차 서버는 일본 내 미국 A회사, 2차 서버는 미국의 C회사였으며,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도메인은 당시 62개에 이르렀다고 한다(홍영선, 2019: 39-40).

셋째, 성매매 업주와 경찰 간의 ‘새롭지 않은’ 유착 관계를 넘어, 시민단체-경찰-운영자-업주 간 새로운 공생 관계가 발견되었다. 2019년 9월 4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의 경위가 ‘밤의 전쟁’ 운영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뇌물협외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머니투데이』, 2019.9.18). 그는 사이트 운영자와 지인 관계이며, 10번 넘게 뇌물을 받고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배 정도도 확인해 알려주었다 한다(『KBS』, 2019.9.5).⁹⁾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연루

7) ‘밤의 전쟁’의 모태가 되는 사이트 당시에도 전국 1,300여 개 성매매 업소에서 한 업소당 월 30만~4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고 한다. 벌어들인 돈이 78억여 원이다. 붙잡힌 운영자 가운데 1명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의 월세 800만 원짜리 108평 오피스텔에 살면서 4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8)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운영총책 A씨(35세) 등은 2014년 6월 2일, ‘밤○○○’ 도메인을 등록 후 2015년 초, 일본 서버를 임대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한다.

9) 뇌물수수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넘게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차명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수백만 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가로 A 경위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을 알고도 묵인했다. 범죄를 알게 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그럴 수 없을 땐 범죄 첩보로 보고해야 하는 경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뇌물은 운영자가 2017년 1월 붙잡히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됐다. 한 단체의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초까지 경기도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성매매 업주들을 협박해 단체 가입을 종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한겨레』, 2019.8.27; 『KBS』, 2019.9.5).¹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단체가 ‘성매매 근절,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지지운동을 벌여왔던 단체 중 하나였고, 붙잡힌 단체 회원 중 한 명은 성매매 오피스텔을 20곳이나 운영한 업주였다는 점이다(『중앙일보』, 2019.8.27).¹¹⁾ 사실상 시민단체의 외피를 입은 알선업자-업주들의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이 이토록 광범위한 조직과 규모를 갖추게 했을까. 운영방식과 내용은 어떠하며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이면에 감춰진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커뮤니티 후기 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변화하고 있는 성매매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동 자본주의의 전환과 날로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남성들은 어떤 기호를 재생산하고 사용하고 체험하며 다시 소유하며 이윤을 축적하는가. 탈실체적 존재자들이 유동하는 디지털 성산업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탈장소적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창발하는가. 탈실제적/실제적 존재, 물질성/비물질성, 장소성/탈장소성은 성매매를 둘러싸고 어떻게 유비되는가.

10) 실제 경찰은 이 단체 대표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단체 가입을 종용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단체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밤의 전쟁’ 운영자에 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 한다(『한겨레』, 2019.8.27).

11) 여성단은 ‘성매매 근절,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지지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다. 이 단체의 전 대표 신모(40)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원·화성 등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 14명에게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여성단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여성단 간부는 신씨 등의 비호로 화성, 동탄 신도시 등에 성매매 오피스텔 20곳을 운영하기도 했다(출처: 『중앙일보』, 2019.8.27).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밤의 전쟁’과 ‘밤의 전쟁 시즌 2’를 분석하고자 한다. ‘밤의 전쟁’(<그림 3>)은 도메인 차단을 피하기 위해 이미 50여 차례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여성단체의 고발과 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2019년 7월, ‘밤의 전쟁’ 사이트가 삭제되었다. 연구자들은 이후 ‘밤의 전쟁’의 트위터 계정 및 해시태그들을 추적하며 ‘밤의 전쟁’의 흔적을 찾으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9월 4일을 기점으로 ‘밤의 전쟁 시즌 2’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당일 올라온 후기게시판의 게시 글은 대략 56,000건에 달했다. 가장 처음 올라온 후기 내용은 지난 1월의 성매수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상 백업자료의 일부가 한꺼번에 게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9월 ‘밤의 전쟁’이 문제시 되었을 당시 수집한 자료와 2019년 9월 4일 ‘밤의 전쟁 시즌 2’에 올라온 광고와 백업자료들 중, 후기게시판의 게시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¹²⁾

성매매 구조의 문제점과 포털사이트가 지닌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밤의 전쟁’과 ‘밤의 전쟁 시즌 2’에 대한 분석은, 기술의 변화와 연관된 성거래(sex trade)와 성산업(sex industry)의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성매매는 새롭게 많은 역사적 실재이자 학문적 논쟁거리지만, 새로운

12) 2019년 11월 11일 현재, ‘밤의 전쟁 시즌 2’(http://bamwar.com/)의 도메인은 차단된 상태라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관련 사이트 모두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함을 밝힌다.

정보통신기술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의 발전은 가해자와 피해자, 매수자와 알선자, 성매매-음란물¹³⁾-성폭력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적 공격과 괴롭힘, 불법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지인능욕’으로 알려진 합성 사진 게시와 유포 등이 크게 사회문제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여성폭력과 음란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권미경, 2018; 김한균, 2017; 김현아, 2017; 김소라, 2018; 리아, 2018; 박영민·이나영, 2019; 서승희, 2017; 윤지영, 2018; 윤지선, 2018; 장다혜·김수아, 2018; 전윤경, 2016; 한희정, 2018; 홍남희, 2018). 이들은 각각, 온라인 혹은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과 양상, ‘음란’ 규정의 문제와 형사사법적 체계의 한계, 여성들의 집합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논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가령, 철학자 윤지영(2018)은 디지털 성폭력을 “찍는 자만이 아닌 이를 유포하는 자, 보는 자, 폄평하는 자들에 의해 지탱되는 페니스 카르텔이라는 남성 연대의 현장”이라 지적한다(87).

김소라(2018)는 성표현물의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와 놀이/폭력 간 구분이 해체되고, 여성의 일상 전반이 포르노화되었음을 통렬히 지적한다. 그는 온라인의 익명적/준-익명적 관계가 불법촬영물의 비평·변형·창작에 개입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홍남희(2018)는 ‘리벤지 포르노’나 ‘불법 촬영물’ 등이 남성 중심의 인터넷 공간에서 ‘야동’ 혹은 ‘포르노그래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사례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불법화’ 혹은 ‘범죄화’하는 관련 행위 주체들

13) 본문에서는 한국의 법체계에서 사용되는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술적 논의를 위해 포르노그래피라는 영어식 표현을 혼용하고자 한다.

의 담론 전략 및 자원동원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는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 연속체(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개념을 빌어 불법촬영물과 포르노그래피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 페미니스트 클레어 맥글린 외(McGlynn, et al., 2017)가 리즈 켈리(Kelly, 1988)의 '성폭력 연속체' 개념을 빌어 '이미지 기반 성폭력 연속체(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로서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논의할 때 제기한 것이다. 이미지 자체의 성적(sexual) 특징, 가해자-피해자의 젠더화된 특징, 존엄권과 성적 자율성, 성적 표현 등과 관련한 기본권을 위반한 해악(harm)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체' 개념은 그간 비가시적이던 사례들을 가시화하고, 이미지 기반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사례들이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경험을 사고하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홍남희, 2018: 211-213).

한편 김한균(2017)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개념을 보다 확장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를 비롯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디지털 성폭력이라 지칭하고, 그 가해 형태에 따라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소비형으로 구분해 처벌할 것을 권한다. 장다혜·김수아(2018)는 대규모 연구조사를 통해 온라인, 사이버, 디지털, 기술매개형 성폭력 등 혼용되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실제 발생 사건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면서 형사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들의 공통점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성폭력의 단순 매개물이 아니라 구성요소이자 발생 장소임을 논증하고, 온·오프 경계가 점점 모호해짐으로 인해 이론적 논의의 확장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디지털 문화와 '기술매개형' 성폭력 연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매매와 정보통신기술 간 관계를 논하

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디지털/사이버 성폭력을 다루는 연구 대부분이 성매매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한편,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의 도입과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으로 ‘전자 매개형 성매매’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주로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가 ‘사회문제’로 인지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명칭 또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전자 매개형 성매매’, ‘온라인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사이버 성매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인터넷과 관련된 성매매에 관한 국내연구는 크게 (1) 성매매의 개념과 특징(박경래, 2008; 송봉규, 2017; 임운식, 2009), (2) 성매매의 변화 양상(민가영, 2019; 송봉규, 2017; 이나영·윤선미, 2009; 이하영, 2019), (3) 법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원민경, 2019; 이성대, 2019; 임운식, 2009; 장다혜, 2019)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박경래(2008)는 전자 매개형 성매매를 ‘인터넷 성매매’라 정의하면서 협의와 광의로 분류한 바 있다. 이때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는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실 공간에서의 성매매를 의미”하며, 광의의 인터넷 성매매는 “협의의 인터넷 성매매 개념에 직·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 상의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03). 송봉규(2017) 또한 ‘인터넷 성매매’라는 개념을 쓰면서 거래형태와 성매매여성의 소속, 현실 성매매업소와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 바 있다 (<표 1> 참고).

〈표 1〉 '인터넷 성매매'의 분류

인터넷 성매매 분류	분류 1	분류 2
거래형태	직거래형 (채팅 등)	간접거래형 (애인대행사이트)
성매매 여성의 소속	개인형 (개별 계약)	조직형 (성매매알선조직에 속한 경우)
현실공간과의 연계 여부	연계형 (성매매알선업소 운영)	비연계형 (운영하지 않음)
기타 유형	일반채팅사이트, 게임 채팅사이트, 성인채팅사이트, 애인대행 사이트, 조건만남 사이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메일 등	

자료: 송봉규(2017: 47)에서 재구성

그는 성매매 포털사이트의 기초적인 특징을 분석하면서, 최근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성매매알선 업자 간 연계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비, 임대료, 알선 수수료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조직범죄에서 화이트칼라범죄”로 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송봉규, 2017: 54). 그러나 “성매매 웹사이트”가 “결국 성매매를 판매하는 것”(50)이라는 주장은 여성 거래와 착취라는 성매매의 본질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성매매 유형화(〈표 1〉) 또한, 기타유형에 속하는 형식과 독립적 웹사이트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 개인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사실은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개형 알선의 문제가 현장 여성들에게 끼치는 실질적 해악을 연구한 민가영(2019)의 논문은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는 오프라인에 사업장을 둔 채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중개하는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인 오피스텔(일명 오피방) 성매매에 주목하고, 기존의 집결지나 겸업형 업소의 성매매와 다른 점을 분석한다. 업자와 구매자간 직접

적 연결고리 강화, 업주와 성구매자들의 공모를 통한 성구매자들의 ‘구매 권력’ 강화, 이로 인한 성판매 여성들의 고립과 취약성 강화 등을 탐색하면서, 업주-성구매자-인터넷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가 연결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착취 방식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온-오프 연계형 성매매 실태를 파악한 유일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개형’ 알선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한 분석은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자들은 공히 성매매 자체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매개 수단이나 알선 통로가 변화·확대되었다는 것이지 성매매가 현실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기술매개형, 혹은 온라인 매개형 성매매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Ashford, 2008; Jyrkinen, 2012; Earle and Sharp, 2007; Melissa and Kennedy, 2013). 이들 중 사라 얼과 키스 샤프(Earle and Sharp, 2007)는 온라인 남성커뮤니티 PunterNet을 분석한 결과, 성구매 경험과 관련 기술의 변화가 기존의 남성성 구축방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젠더에 관한 집합적 문화규범의 그물망 안에 있음을 밝힌다. 크리스 애쉬포트(Ashford, 2008)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가 성매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정부의 법적·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마주루 저키넨(Jyrkinen, 2012)은 지구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의 몸과 섹스, 섹슈얼리티의 상품화와 성적 거래(sex trades)가 다면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용가능/불가능의 경계, 합법/불법 간 경계가 흐려지고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재구성되며 위계관계 또한 재정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업적 성의 가상화(virtualization)

가 그 형태의 다양화,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 거래 속도와 수익 증가 등 상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하고(13), 이러한 상황에서 성을 거래하는 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가며 다른 성산업과 연결된 새로운 연쇄 망(web of linkages)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4). 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산업과 비즈니스란 명목으로 젠더화된 몸과 섹슈얼리티가 상업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맥섹슈얼라이제이션(McSexualization)이란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24-25),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George Ritzer)가 새로운 사회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맥도날드화(McDonalization)에서 나온 것이다. 저키넨은 맥도날드화의 특징을 차용하고 발전시켜, 맥섹슈얼라이제이션(McSexualization)의 특징을 통제(control), 효율성(efficiency), 측정가능성(calculabil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등 네 가지로 제시한다.

저키넨의 논의는 경계가 흐려지고 다면화되는 성산업과 글로벌 성거래 현상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시장과 산업, 미디어 재현과 포르노그래피 등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성거래(성매매)와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그 경계를 흐리는지, 현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재해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본 논문은 사이버 성폭력-음란물-성매매 간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저키넨이 제시한 맥섹슈얼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정동 자본주의 혹은 디지털 경제로 불리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진화하는 성매매 형태와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3.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형식적 특징: 효율적 접근성, 조직적 운영, 커뮤니티-광고의 결합

성매매 알선 방식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진화해왔다. 초기 ‘전자 매개형’ 성매매 알선 방식이 주로 PC통신, 인터넷 채팅, 음성사서함, 화상채팅, 대화방, 폰팅, 스포츠·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것이었다면, 차츰 일반채팅사이트, 게임채팅사이트, 성인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조건만남사이트, 음란물사이트 등으로 조직화되었고(다시함께센터, 2008; 송봉규, 2017), 각종 블로그나 카페, ‘남초’커뮤니티 사이트, 소셜미디어(SNS)로 확산되었다.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모바일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알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송봉규, 2017: 44). 성매매 알선을 업소 형태와 연결해 유형화하면 <표 2>와 같다.

성매매 포털사이트가 등장한 시기는 대략 개인용 컴퓨터의 너른 보급이 이루어지고, 야후 코리아가 한국에서 최초로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한 199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8년 서울시다시함께센터 인터넷성매매감시단이 실시한 성매매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포털사이트의 전신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과 같은 검색포털사이트 내 개설된 카페이며, 회원 수를 많이 모은 후 독립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로를 띠었다고 한다.¹⁴⁾ 이 무렵 일명 ‘초고속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¹⁵⁾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성매매 알선의 장소를 온라인으로 이동시키면서, 성구매자들의 접근

14) 이에 2008년 9월 8일, 다시함께센터는 다음과 네이버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카페를 폐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그 후 간담회를 통해서 포털사이트 자체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약속받게 된다.

15) 한국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로 악명 높았던 ‘소라넷’ 개설이 이 무렵인 1999년 5월이라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또한 더욱 용이해졌다(장다혜, 2019: 75). 문자나 전자메일은 물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음란물’이나 성매매 광고를 접하게 되고, 간단한 온라인 검색과 포털을 통해 손쉽게 성매매 알선·포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다양한 성매매의 형태

구분	개념	업소 유형	
업소형	전업형 (전통형)	성매매가 일차적 목적인 업종 홍등가/사창가/창녀촌/청소 년유해구역/집결지 등으로 불 리는 지역	유리방(청량리 588, 미아리 텍 사스, 벌집 등) 등
	겸업형 (산업형)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 제 공/알선 등록된 고유 업종 이외 성매 매 제공/알선	단란주점, 노래방, 사우나, 안 마시술소(맛사지), 무도장, 키 스방, 여관, 호텔, 휴게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카페, 룸살 롱 등
비업소형	인적 매개형	인력공급자가 성매매 여성을 성구매자에게 연결/알선 (전 단지나 광고물 등 활용)	보도방, 직업상담소, 애인대행, 출장마사지, 에스코트 등
	전자 매개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매 자와 연결/알선 (전화, 인터 넷, 스마트폰 등 활용)	전화방, 화상채팅, 대화방, 앱 채팅 등 각종 채팅방, 채팅사 이트, 채팅앱, 성매매 알선 사 이트 등
	직거래형	성매매 여성이 호객 등을 통 해 직접 연결	거리 성매매, 계약 동거 등

그렇다면 ‘밤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최근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 사이 트의 형식적 특징은 무엇인가. 기존 ‘인터넷 성매매’와의 차이점을 무엇인 가. 우선, 탁월한 접근성과 효율성이다. 2008년 서울시다시함께센터가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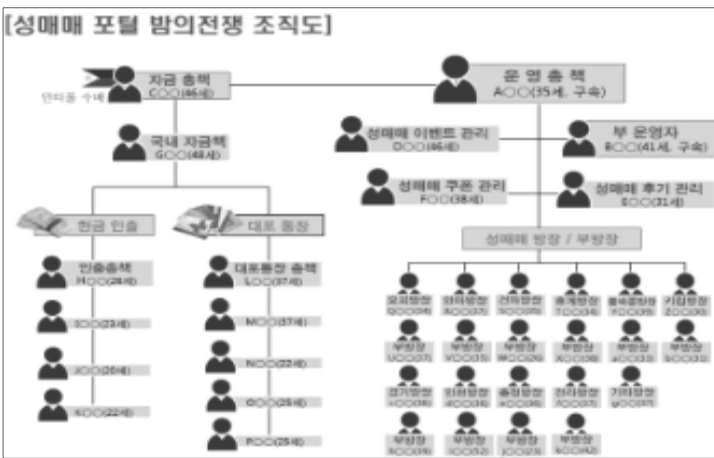
발한 “밤문화후기사이트” 사이트는 총 5개였다고 한다. 이들은 검색포털 사이트 내부가 아닌 독자적 성매매 포털사이트였는데,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가입 시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밤의 전쟁 시즌 2’의 경우, 인증절차가 없으며, 가명에 가짜 이메일과 가짜 휴대폰 번호로도 손쉽게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 할 것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들은 모객으로 이어지는 웹사이트 방문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무료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음란물’이나 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연계하고 있다(송봉규, 2017: 50). ‘밤의 전쟁’ 운영자들도 최초 사이트 개설 시 ‘음란물’을 올려 회원 25만 명을 끌어 모은 뒤 성매매업소 홍보 글을 올렸다고 한다(『KBS』, 2019.9.5).

손쉬운 방법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성매매업소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며, 여성들의 특징과 서비스 내용, 영상과 사진을 공유 받고(이하영, 2019), 간단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 업소를 방문한다. 저키넨(Jyrkinen, 2012)이 지적한 바, 고객을 유인해 최대의 이윤을 올려야 하는 업주의 이해와 에너지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고객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발전된 기술을 매개로 성거래가 확장되고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수동적 관리자에서 적극적 매개자-이윤 생산자로 바뀐 운영자 체제다. 이전 성매매 ‘조장/알선’ 웹사이트가 배너형식의 광고를 신고자하는 성매매 알선업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거나, 성매매 알선비용의 일부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방식이었다면(송봉규, 2017), 최근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관리·분배하는 구조로 체계화된 특성을 지닌다. <그림 1>에서 보듯, 운영 총책은 자금 총책과 연결되어 있고, 자금 총책 아래에 현금 인출과 대포 통장 관리자들이 있으며, 운영 총책 밑에는 성매매 이벤트 관리자와 쿠폰 관리

자, 후기 관리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상당한 인원의 성매매 방장과 부방장들이 하루 조직을 이룬다. 일반회원부터 부방장, 방장, 핵심운영진, 부운영자, 운영총책 등으로 직책을 만들어 기업체처럼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직급이 상승될수록 더 많은 무료쿠폰 등으로 회원들을 성구매로 유인할 수 있다고 한다(홍영선, 2019: 41).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역별·유형별 방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후기를 작성·관리하게 하고, 더 많은 성매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유치하며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주관한다고 한다(이하영, 2019: 8).

〈그림 1〉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진 조직도



자료: 경찰청 브리핑 자료(2019.5.22).

셋째, 사이트의 화면 구성 또한 다각화되었다. 2000년대 알선사이트들 상당수가 인터넷 사용자·구매자들이 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었고, 조장/알선 웹사이트들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신거나 랜덤 채팅방을 창출해 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택했다면(송봉규, 2017), ‘밤의 전쟁’

으로 상징되는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는 상업적 특징과 커뮤니티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사이트의 화면 구성은 지역별/유형별 업소광고, 예약시스템, 성매수 후기작성 및 관리, 업소 이용 이벤트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지만(이하영 2019: 8), 크게 업소 정보와 커뮤니티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업소 정보란은 성매매 업소가 광고가 올라오는 부분에 해당한다. 지역별·업태별로 구분되어 있고 업소들의 홍보와 이벤트 정보가 올라온다. 대전지방경찰청이 브리핑에서 밝혔듯, ‘밤의 전쟁’은 다양한 성매매 유형별로(오피, 안마, 스파, 건마, 휴게텔, 풀싸롱, 키스방, 립카페, 핸플페티쉬) 9 종류의 게시판을 물론, 지역별로(강남, 비강남, 경기<남북>, 인천, 충청·강원, 경상·전라·제주) 7개의 게시판을 운영했다고 한다(대전지방경찰청, 2019.10.22). 고발장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각 업소들로부터 매달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홍보와 방문후기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게시했다고 한다. 고발자들은 모니터링에 기반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서, 성매매 광고의 경우, “다양한 성매매 업종의 명칭, 연락처, 성매매 시간 및 횟수에 따른 성매매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고,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된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원샷,¹⁶ 입싸,¹⁷ 핸플,¹⁸ BJ,¹⁹ 봉지,²⁰ 전투²¹) 등”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다시함께·전국연대, 2018: 3).

실제 ‘밤의 전쟁 시즌 2’의 경우에도²²)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16) 사정의 횡수를 지칭하는 은어

17) 여성의 입안에 사정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은어

18) 여성이 손으로 사정시켜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은어(Hand Play에서 유래)

19) 구강성교를 지칭하는 은어

20)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표현하는 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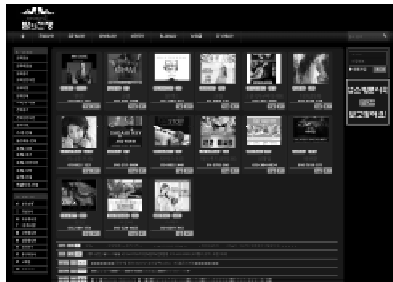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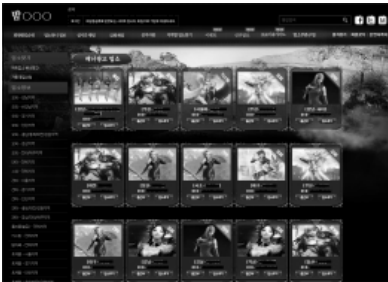
21) 주로 하드코어라 불리는 업소에서 술자리를 마무리할 때 여성이 해주는 구강 성교행위를 비유하는 은어

22) <http://bamwar.com/>(검색일: 2019.9.18)

화면 전반에는 업소가 올리는 광고가 자리 잡고 있고, '커뮤니티'에는 공지 사항과 가입인사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다. 게시판에는 성매매 후기 게시판 뿐만 아니라 질문 게시판, 불법캡처와 불법촬영물을 게시하는 게시판 등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2〉와 〈그림 3〉 참조).

〈그림 2〉 '밤의 전쟁'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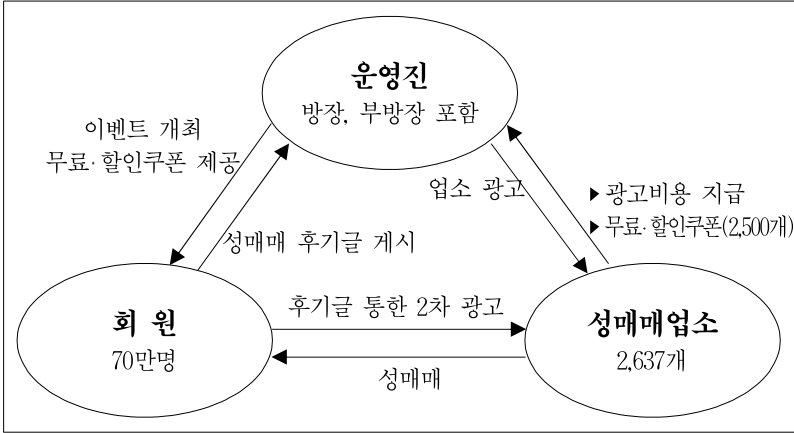
〈그림 3〉 '밤의 전쟁 시즌 2' 메인 화면



기존 인터넷 성매매와 차별화되는 이 같은 형식적 특징은 사실상 이윤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수익 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와 포털사이트 간 결합에 따라, 성산업의 운영·수익 구조와 포털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가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성구매자와 플랫폼 이용자/적극적 참여자가 업소 및 운영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그렇다면 운영진과 업소, 회원들 간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지지가 만들어내는 이윤창출의 회로 속에 여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림 4〉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 구조



자료: 홍영선(2019: 41)

4. 정동 경제? 남성중심의 디지털 욕망경제!

이상의 형식 때문에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처럼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 또한 정동 자본주의라는 오늘날 경제체제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정동 자본주의란 통상, 지식과 정동 같은 “비물질재가 수익 창출의 핵심 원천”이 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일컫는다(이항우, 2017: 9). 축적양식의 측면에서 보면, 정동 자본주의는 “정보, 지식, 정동, 창의성, 혁신 등과 같은 비물질재에 대한 투자가 이윤 획득의 주요 원천이 되는 경제 체제”이고, 생산양식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수직적 산업적 노동 분업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두뇌들의 대규모 협업”을 중시한다(같은 글, 103).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 정동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은 인간들 간 “관계와 소통에서 형성되고 유동하는”, “정동의 상품화와 화폐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같은 글, 11).

개설자/운영자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성매매업주들은 등록과 광고 게시를 통해 플랫폼의 주요 이익을 창출하며,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참여자가 업소 정보와 체험기를 적극적으로 올리므로써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흥미, 만족, 관심, 흥분이라는 정동의 관리와 개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는 디지털 경제구조를 배태한 정동 자본주의의 축적과 생산 양식의 전형을 따르는 듯하다(〈그림 5〉, 〈그림 6〉 참조). 사이트 운영자는 과거 성매매 알선자의 위치를 넘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막대한 지대를 축적하는 새로운 플랫폼 벡터 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5〉 업소 광고 예시

강남 최상위 1% 프리미엄
VVIP는 현예기행사, 모델, 배우
에이전시, 레이싱걸, 대학생 등
인류계 중시자가 아닌 일반인 중
마인드인 양모를 갖춘 분들은 선발해
최고의 멤버로만 구성합니다

COURSE 70분 1회 45만 ~ 100만
 PRICE 90분 2회 1회비용 + @

〈그림 6〉 후기 글 예시

******* 매니저 예약주 *******
 "다른 사람 정보 없이
 예약주 소문
 >>>들이 매니저들 몰려야만 알음알,
 웃음제 나~웃나 예쁜,
 잘 일어요. 미용,
 예뻐요."

******* 매니저 예약주 *******
 솔방울 할애
 하리가 진짜 개라하리,
 상하와 비늘도 좋은,
 보통사람 할러야."

******* 매니저 예약주 *******
 도도한 인상과는 다른 성격은
 정말 진짜일 때하리,
 친구에서 매니저도 할방

******* 기타 *******
 용인 조
 사해이스트 조
 여정 조
 여정 조

추천 키워드 : (이름명, 예약주명, 매니저 소문)
 비추천 키워드 : (이름, 예시, 미녀, 기타)

회원들끼리 등록된 업소들을 방문한 '체험기'들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 게시판 또한 정동 자본주의의 특징을 일면 반영한다. 이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주로 체험에 대한 의견 표방이나 단순 기술(既述)의 형식으로 후기 게시판을 운영했다면, '밤의 전쟁'류의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의 경우,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가 결부된 사용자-제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공유하는 플랫폼 산업의 ‘동료생산’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원래 ‘동료생산’은 “시장 논리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각기 동등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생산 모델”을 의미한다(이항우, 2017: 50). 이항우(2017)는 현대 자본주의의 성격변화를 “네트워크화된 정보 경제, 인지 자본주의, 네트지배 자본주의, 벡터 자본주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서 “동료생산 모델이 기존의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에 지니는 의미를 살핀다(50-52). 그는 리눅스, 위키피디아 등 정보공유 사이트들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영리기업들도 익명의 수많은 사용자들이 “정보적·표출적·의사소통적 필요가 만들어내는 ‘동료생산’ 원리에 토대를 둔 사이트”로 본다(69). 이러한 동료생산은 “개인들 혹은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발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는 다양한 “사용자-제작 콘텐츠들”을 포괄하지만 이를 통한 이윤은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에게 독점된다(68-70). ‘참여’, ‘공유’, ‘협력’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탈중심성과 비시장, 비독점을 지향하는 디지털 시대의 생산원리가 점차 기업들의 사적 이익 창출 전략과 수사로 활용되면서 웹 2.0 자본주의 논리 속에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또한 노동과 소비, 일과 놀이, 소비와 생산의 경계를 허물면서 참여와 공유,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 산업의 문법을 일면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전형적’ 정동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도, 벗어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플랫폼 벡터 계급이 이용자·소비자들의 자유/무료 노동이 창출하는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것(이항우, 2017: 108)과 달리,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사이

트의 사용자는 성구매를 위한 지원과 혜택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 받는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가 플랫폼의 이윤 창출을 위해 후기 게시판을 직접 관리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며, 업소 또한 후기를 가장한 업소 광고글을 신는 등 적극 관여한다. 이는 보다 강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보다 많은 구매자를 유인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시판 운영방식의 특수성과 연관된다.

대표적인 제도로 '쿠폰'과 '포인트' 제도를 들 수 있다.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광고나 후기를 보고 성구매를 하고, 이후 게시판에 경쟁적으로 후기를 올린다. 회원들이 후기를 남기면 게시판 방장 등으로부터 '성매매 쿠폰'을 받거나, 관리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는다(『문화일보』, 2019.6.4). 이용자·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쿠폰에는 무료쿠폰과 원가쿠폰이 있는데, 무료쿠폰은 성매매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쿠폰으로 매월 1,000여 매 지급되며, 원가쿠폰은 원가보다 2~5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으로 매월 1,500여 매 지급된다고 한다(경찰청 보도자료, 2019.5.22). 흥미로운 점은 쿠폰 제공자, 즉 이윤 공여자가 이용자들이 창출하는 잉여가치를 소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광고를 게재하는 성매매 업주라는 점이다.

둘째,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온·오프 적극 연계형 성매매 플랫폼이다. 비물질적 공간에서 탈장소적 주체들이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을 기호로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소비자가 '구매자'가 되어 업소·현장-를 방문해야만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다. 성구매자로부터 얻은 업소 이익의 일부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불되고, 그 일부가 구매자들에게 다시 제공되며, 이들 간의 상호협업을 통해 구매가 다시 촉진되는 순환 구조를 지닌다. 탈실제적/실제적 존재, 물질성/비물질성, 장소성/탈장소성 간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시 연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가령, 사이트 운영자(운영총책)는 월 30~70만원의 광고비와 쿠폰을 성매매업소로부터 제공받는다. 운영자는 업소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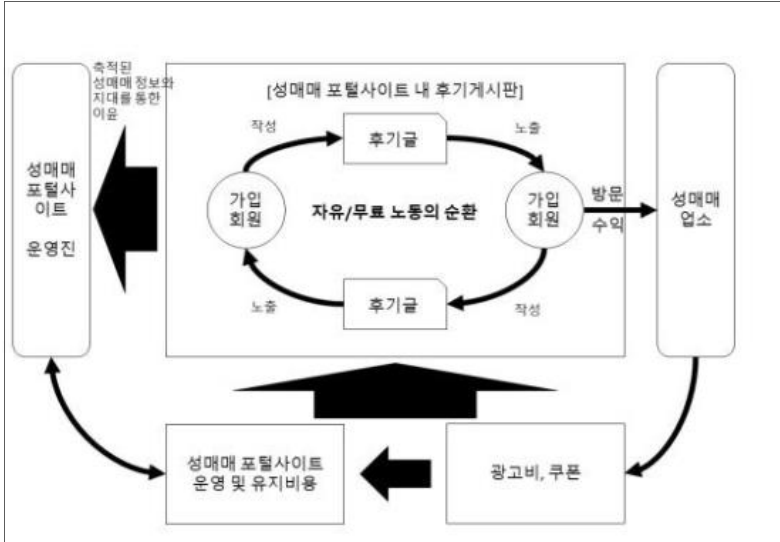
게시판 방장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핵심 운영자에게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장들을 관리한다. 게시판 방장은 월평균 90여 건의 이벤트를 개최해 ‘우수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판을 관리한다. 쿠폰을 제공받는 이용자·소비자는 성매매 업소로 유인되고 성구매자는 다시 쿠폰을 얻기 위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성산업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구매자를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제작 콘텐츠(후기 게시글)의 유통 기회를 늘림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보다 큰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특수성은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존재 이유와 관계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소비자 간을 매개하는 핵심 고리이자, 플랫폼 이용자들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실행의 장은 비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인 성매매 업소이며, 실행 대상은 탈장소적 주체가 아니라 실제하는 인간 여성의 몸이다.

클라프(2015)가 지적한 바,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이제 실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정동적 반응을 조정, 변화, 강화하면서 신체적 정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광택이 되었다(356). 상품화와 노동의 차이, 생산과 재생산의 차이는 정동을 순환시키는 (자본) 능력의 변이 속에서 붕괴되었다(356).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신체적 정동이란 무엇인가. 결국 여성의 몸을 둘러싼 남성중심의 욕망 경제가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핵심 기저 아닌가. 만약 정동이 “행위의 형태로서 몸들을 만들고 형성하는데 작동”한다면(Ahmed, 2015: 4), 어떤 몸과 형상이 만들어지는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특징을 종합해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의 특징



5. 강화되는 남성권력, 포르노-성매매-사이버성폭력 간 경계를 넘어 거래되는 여성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가 파는 것, 혹은 거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홍보하는 홈쇼핑 사이트나 광고 사이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성매매 업소인가, 성매매인가. 다른 포털 사이트들이 이용자들 간의 비위계적 관계를 통해 감정을 교류하는 형태라면,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들은 남성들만의 일방적 교류 속에 여성의 이미지를 미끼로 살아 있는 ‘여성’을 거래한다는 점이다.

우선, 모객을 위한 ‘고전적’ 수법에 해당하는 ‘음란성’ 광고를 보자. 모든 이미지는 사실상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몸이거나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 촬영물 등으로 제작된 여성 이미지다. 성매매 업소의 예약 자체가 올라

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업소 광고는 중요하다. 업주들은 더 많은 예약과 더 좋은 후기를 얻기 위해 광고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몸을 찍고 어디선가 생산·유포된 이미지를 재가공해 올린다. 일을 그만둘 각오가 없다면 당사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피해야 할 가게와 실장, 부장에 대한 정보 교환, 비웃기, 후기 삭제 정도에 불과하다(민가영, 2019: 112). 더군다나 자신의 몸 이미지가 촬영되고 편집되고 유포된 줄도 모르는 여성들의 경우, 다시 2차, 3차 피해를 입는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 117-119).

‘후기’라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시물들의 형태와 내용은 더 문제적이다. 운영자나 업주가 올린 광고성 글과 차별화하기 위해 실구매자가 올렸음을 인증하는 ‘인증샷’이란 제목의 게시물들에는 성매수 남성들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폄평과 남성성의 과시가 압도적이다. 가령, 여성의 가슴노출 사진 아래 “나 이렇게 가슴 큰 여자랑, 몸매 좋은 여자랑, ‘야한’ 여자랑 (그 외 여자랑) 성매매 했다”는 자기과시형 기술이 붙어 있다. 사진의 경우, 실제 구매 후기임을 ‘인증’하기 위해 여성의 얼굴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노출 시키는 경우가 상당하며, 특정 신체 부위만 클로즈업해 올리기도 한다. 심지어 한국여성/외국여성/백인(백마)/라틴/태국 등으로 인증별로 분류된 여성들의 몸이(아래 게시글 참조), 가슴, 엉덩이, 다리, 성기 등 신체통합성을 상실한 채 특정 부위별로 과편화된 채 노출되어 있다.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각 권력’의 주체-남성은, 이렇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작되는 신체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한다(김은주, 2016: 149). 가히 한국 “남성 시선-주체의 특권적 인식 좌표계의 창출”(윤지선, 2018)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왜 백마백마하는지 알았습니다

뭐라고는 하는데 영어인지 러시아말인지 모르겠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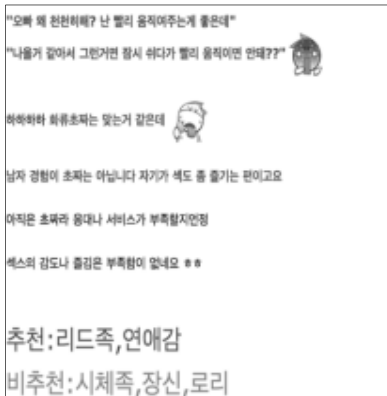
미치겠던데요 백마에 중독될 것 같습니다

<##무보정올탈샷## 완벽한 몸매 빨통 골반 엉덩이 모두 S급클라 스택마 올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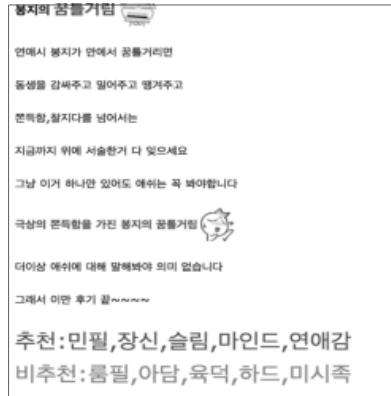
오늘은 팩트 나나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짝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실장님에세 가슴이 이쁜 언니를 추천 받아봅니다!
 태국은 C컵 D컵 이면 거희 수술이랑걸 알지만
요새 태국애들도 가슴에 투자를 잘해서 괜찮은걸 잘압니다!
 (후략)
 <몸매 좋고 서비스 마인드 좋고! 나나 매력있네요>
 (자료: '밤의 전쟁 시즌2' 후기 게시판)

조각난 여성의 신체 부위 아래에는 대개 남성들의 '느낌'과 '감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성구매자들은 “와꾸”(얼굴), “몸매”뿐 아니라 “마인드”를 항목으로 나누어 몸과 서비스를 함께 평가하거나, “대화스킬·서비스”, “색반응”, “침대스킬”, “총평”으로 나누어 여성의 성적 능력과 반응까지 아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후기글에 남기며, 다른 남성들의 취향에 따라 업소와 ‘아가씨’를 고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그림 8〉 참조).

〈그림 8〉 후기 글 예시



자료: '밤의 전쟁' 후기 게시판



자료: '밤의 전쟁' 후기 게시판

남성 구매자들의 통제력은 '내상'과 '마인드' 후기라는 또 다른 지표를 통해 확장된다. '내상'은 여성이 성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만족함을 표현하는 단어이며, '마인드'는 만족스러운 대접을 받았을 경우를 지칭한다. 여성의 '서비스'뿐 아니라 몸매, 감정, 느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을 평가하는 일종의 기준이다. 여성들이 '내상' 후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의 시선과 관점에서 남성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원한다는 느낌까지 제공해야 한다. 때로는 '애인 모드'로 '술집 여자 같지 않은 풋풋함'으로, 때로는 '프로'같이, 여성들은 성구매자가 원하는 대상으로 변신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표현해야 하기에 엄청난 감정노동이 수반된다.

나이기도 23살에 여대생 스타일에 **술집여자같지 않은 풋풋함**에 끌렸네요

오빠오빠거리면서 연신 달라붙어 애교부리는데 너무 귀여워서 집에 데리고 가고싶었네요

<◎C컵가슴실사진인증◎하드코어 글램몸매 죽여주세요>

열심히 닦아주고, 같이 샤워하러 들어가서 마저 장난 치다가, 정말 이쁘다고 해줬더니 좋아합니다.

재접 저는 200% 입니다. **애인모드도 기본으로 깔고 가서, 업소 온 느낌 안들고 좋네요**

<처음으로 태국츠스한테 반했네요.: ㅎㅎㅎ>

나이기도 딱 봐도 21~23살 정도 되네여

일한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했는데 남자를 대하는 법을 아는 매니저네요 ㅎㅎ 샤워할때도 방긋 웃어주고 그렇다고 계속 웃어만 주는게 아닌 할꺼 다하고

<[하나] 어린 영계 줌보의 그녀의 매력>

(자료: '밤의 전쟁 시즌2' 후기 게시판)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남성들이 “끌리고, 박고 싶은” 것, 남성들을 “미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럴수록 상품으로서 가치-매매의 가치- 또한 높아진다. 하나의 ‘상품이자 소모품’인 성매매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성구매자들의 전리품이 되어 후기글과 함께 박제된다. 정동 연구자 사라 아메드(Ahmed, 2015)는 이데올로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은, “대상-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정렬시키며, 반복(repetition)의 효과를 통해 (본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비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축적”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11).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에서 남성들 간에 순환하는 감정은 숭배/비하의 모순적 ‘가치’를 여성의 몸에 부여하고 정렬시키며, 반복의 효과를 통해 하나의 ‘상’을 구축한다. 그 ‘상’이 끊임없이 지시하는 것은 캐더린 매킨논(MacKinnon, 1989)이 지적한 바, “남성의 발기와 만족을 위해, 남성 욕구가 요구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여성이다(318). 지배가 곧 쾌락인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피해자화와 가해, 착취가 불가분한 관계로 연결된 남성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MacKinnon, 1987: 167), 재현 안/밖에서 여성은 절대 강제되지(forced) 않고 현실화된다(actualize),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에서 정동의 순환과 축적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 자체, 이를 거래하는 남성들 간의 연대와 결속감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의 속성을 저키넨(Jyrkinen, 2012)이 제시한 맥섹슈얼라이제이션의 네 가지 속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혁신적이고 보다 발전된 기술은 젠더 불평등의 현실과 결합되어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통제(control)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성산업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욕망기호(嗜好)에 따라 분류되고, 표준화되며 획일화된 이미지를 부여받는다. 현장에서 여성들은 이에 걸맞는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의 증가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

을 추구하는 속성이 맥도날디제이션의 특징 중 하나라면,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의 모든 요소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최단 시간에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남성 구매자들은 성구매를 위해 소비할 시간과 에너지,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고르며 안전하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셋째,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에서 남성 구매자들은 구매 후기 글을 통해 지불한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제공받는다. 업소 유형, 여성의 신체적 특징,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는 측정가능성(calculability)을 보증할 주요한 지표다. 이는 마지막 특징인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연결되는데, 성구매자는 이제 특정 업소의 특정 여성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이 주문한 행위, 원하는 성적 안식(relief)과 만족감을 얻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려지고 삭제되는 것은 성매매의 착취적 현장과 ‘살아있는 여성의 상처와 고통’이라는 점이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 118, 126). 민가영(2019)은 업주-성판매 여성-성구매자의 관계에 인터넷이라는 매개가 결합될 때, 그 환경은 성매매 여성에게 훨씬 더 착취적임을 논증한 바 있다. 그는 오피스텔 성매매로 이어지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매매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의 몸으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권력은 바로 “분류의 권력”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업주는 후기를 무기 삼아 성판매 여성을 통제”하고 압박한다(112-113). 업주와 성구매자 간 공모를 통해 성구매자들의 ‘구매 권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여성에게서 인격과 자율성을 지우는 몸의 상품성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업주와 성구매자의 권력을 더욱 증대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민가영, 2019: 114-115). 실제 현장 활동가들도 업소에 있는 여성들이 “불법촬영과 개인정보 노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매매 후기 작성에 필요한 인증샷을 위해 성매매업소에서는 구매

자들의 불법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 때문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이하영, 2019: 12).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었을 때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이윤 생산의 도구로서 특정 몸 이미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순환될 때, 기술과 자본의 힘으로 거래 양태와 속도가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할 때, 비대칭적 권력 구조 하에 놓인 취약한 여성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과연 무엇인가.

윤지영(2016)은 여성혐오를 폭력이라 지적한 후, 기존의 인식체계를 지탱하는 문화 규범과 질서의 정립 방식으로 자리함으로써, 일상성과 정상성을 획득한 채 우리 삶을 운용하는 원리로 곳곳에 뿌리박혀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혐오는 소수자를 “통치, 배제, 열등화하는 관리방식”이며 주로 죄책감과 공포를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227). 특히 여성혐오는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범주화(승인/낙인)하거나, 여성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시선의 관통을 통한 평가방식의 계량화와 세분화를 통해 작동한다고 지적한다(209). 그러므로 여성혐오는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여성의 몸과 성이 활용되고 성폭력이 동원되는 방식을 정상화·정당화하는 핵심 기저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이분화(찬양/비하)를 정당화하며, 여성에 대한 중층적 예측화 원리들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남성 권력의 테크놀로지다(이나영, 2019: 20-2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단순히 성매매를 권하거나 개인적 체험을 담아내는 장이 아니다. 광고란 명목으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고 조각내 포르노그래피로 만들어 성구매를 촉진하고, 살아있는 여성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한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 구매후기란 명목으로 공유한다. 포르노그래피적으로 묘사된 구매후기 속 여성들은 강제된 성매매 현장의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을 적

극적으로 요청하고 실행을 현실화하는 대상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와 섹스하기 위해 남성들은 성매매 현장을 찾아가고, 다시 불법 촬영물을 찍고 ‘리벤지’ 포르노를 만들고 공유한다. 여성폭력의 총체적 현장인 것이다. 여성혐오-성매매-포르노-사이버성폭력이 연결된 장으로서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하고 재정렬시키는 최전선이 되었다.

6. 나가며

본 논문은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사이트 분석을 통해 기술의 발전 및 자본주의의 변형과 연결된 성거래·성산업 구조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밤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성매매 알선·후기 포털 사이트의 확장은 몇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상징한다. 우선, 인터넷 매개-성매매 현장, 구매자-알선자-업소(자), 포털사이트의 이용자-성매수자 간 관계 및 성격의 변화다. 이제 알선자는 플랫폼의 개설자이자 운영자가 되고, 성매매업주와 만나지 않고도 광고비를 받아 업소 예약을 안내하는 광고를 실거나 후기 게시글까지 개입하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성매매업소는, 수동적으로 손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해 광고를 싣고 후기 글을 통한 2차 광고효과로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해 매출을 올린다. 구매자들은 포털사이트의 음란물이나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하며 후기 게시판을 살펴본 후 ‘좋은 후기’를 받은 업소의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 ‘실제’ 성구매를 하며 다시 후기를 올린다. 이들은 단순히 사이트의 이용자나 고객, 혹은 성구매자가 더 이상 아니다. 성매매의 알선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음란물의 생산자가 되었다. 알선자가 깔아 둔 플랫폼에 업주와 구매자가 연결되고, 알선자와 업주는 다시 구매자를 통해

매개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자가 연쇄적으로 얽힌 순환고리에서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남성이 원하는 '여성'이다. 여성 교환과 거래의 역동은 욕망과 돈이다. 철저한 수익구조로 이루어진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연쇄 망 안에서 조각난 여성의 신체는 성구매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란 명목으로 공유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와 섹스하기 위해 남성들은 업소를 찾고, 다시 불법 촬영물을 찍어 공유하고 소비한다. 상호지지와 승인이라는 구조 속에서 남성들은 성매수와 알선에 대한 죄책감을 심리적으로 덜어내고, 놀이와 소비, 공유와 참여라는 디지털 경제의 문법으로 성매매와 음란물의 불법성은 물론 성폭력과 성착취의 문제까지 탈각시키고 있다.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라는 허울로 때론 낙관적으로 그려지는 디지털 경제 혹은 정동 자본주의는, 기실 남성의 성적 욕망에 호소하며 기호로서 여성을 소비하고 공유하고 다시 살아있는 여성거래와 착취의 노드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음란물-사이버/성폭력을 한 줄로 정렬시킨 성매매 알선·후기 사이트는, 여성혐오에 기반한 젠더폭력이 총체적으로 발생하는 장이자, 남성의 욕망과 놀이, 돈벌이와 이윤추구라는 명목으로 확장되는 성착취 유비쿼터스의 암울한 현장이다. 온오프를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지배·통제력, 효율성과 측정가능성, 예측가능성을 보증하며, 페니스 연대체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결과 확장의 배경에는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원민경, 2019: 장다혜, 2019), 법정 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 및 법 적용의 문제(원민경, 2019)가 존재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연쇄(temporal, spatial, and cultural) 속에 여성을 타자화하고 열등한 존재로 복속시키는 남성중심의 문화와 구조(Jyrkinen, 2012: 14), 여성을 사고 팔고 때리고 착취하고 성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 자신이다. 결국 기술의 발전,

자본 구조의 변화, 늘 뒤따라가기만 하는 형사·사법적 제도는 모두 견고한 남성 카르텔 안에서 만들어지고 지지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경(201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10권 3호, 39-76쪽.
- 김소라(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제57권 1호, 163-199쪽.
- 김은주(2016), “시각 기술의 권력과 신체 없는 기관으로서의 신체 이미지”, 『한국여성철학』, 제25권, 137-164쪽.
- 김한균(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3호, 27-57쪽.
- 다시함께·전국연대(서울특별시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018), 「고발장」(2018.9.17).
- 리아(2018), “우리의 운동은 지금 막 시작했다”, 『황해문화』, 제101권, 74-90쪽.
- 민가영(2019), “성매매 운영 대중화에 따른 개별화, 후기 게시판 시스템에 대한 연구: 인터넷 연계형 성매매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6권 1호, 93-120쪽.
- 박경래(2008), “인터넷 성매매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존스쿨 교육대 상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0권 2호, 301-332쪽.
- 박영민·이나영(2019),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제34호, 135-191쪽.
-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9권 3호, 59-95쪽.
- 서울시다시함께센터(2008),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 차단을 위한 2008 다시함께 포럼 자료집」.

- 송봉규(2017),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3호, 41-58쪽.
- 원민경(2019),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성매매방지법 15주년 디지털 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9.09.20).
- 윤지선(2018),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의 형이상학적 분쇄도: 남성 시선-주체의 인식좌표계 분석”, 『철학연구』, 제122호, 287-318쪽.
- 윤지영(2016), “현실의 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 - 남성공포에서 통감과 분노의 정치학으로”, 『철학연구』, 제115호, 197-243쪽.
- _____(2018), “디지털 매트릭스의 여성착취문법: 디지털 성폭력의 작동방식과 대항담론”, 『철학연구』, 제122호, 85-134쪽.
- 이나영(2019), “여성혐오와 페미사이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의 격발』, 이나영 엮음, 서울: 돌베개, 15-38쪽.
- _____. 윤선미(2009), “청소녀 사이버성매매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6권 2호, 141-186쪽.
- 이성대(2019),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형사정책』, 제31권 1호, 283-312쪽.
- 이하영(2019), “디지털시대의 성매매·성착취, 착취구조의 변형과 심화”, 성매매방지법 15주년 디지털 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9.09.20).
- 이향우(2017),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독점 지대, 4차 산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파주: 한울아카데미.
- 임운식(2009), “사이버성매매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3호, 175-207쪽.
- 장다혜(2019), “수요차단전략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 성매매방지법 15주년 토론회 자료집.
- _____. 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57쪽.

- 전윤경(20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헌법연구』, 제19권 3호, 113-144쪽.
- 클라프, 패트리샤 T.(2015), “정동적 전화: 정치경제, 바이오미디어, 신체들”, 『정동 이론』, 그레고리 J. 시그위스·멜리사 그레그 엮음,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서울: 갈무리, 333-361쪽.
- Clough, P.T.(2010), “The Affective Turn: Political Economy, Biomedicine, and Bodies”, in *The Affect Theory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206-226.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9), “2020 한국사이버성폭력을 진단한다”, 미간행.
- 한희정(2018), “사이버 성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들”,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3권 3호, 213-255쪽.
- 홍남희(2018),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3권 2호, 203-246쪽.
- 홍영선(2019),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과정과 성과”, 성매매방지법 15주년 디지털 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19.9.20).
- Ahmed, S.(2015),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Ashford, C.(2008), “Sex Work in Cyberspace: Who Pays the Pric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17(1), pp. 37-49.
- Earle, S. and K. Sharp(2007), *Sex in Cyberspace: Men Who Pay For Sex*, London & New York: Routledge.
- Jyrkinen, M.(2012), “McSexualization of Bodies, Sex and Sexualities: Mainstreaming the Commodification of Gendered Inequalities”, in *Prostitution, Harm and Gender Inequality: Theory, Research and Policy*, ed. M. Coy, Burlington, VT: Ashgate, pp. 13-32.
- Kelly L.(1988), *Surviving Sexual Violen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cKinnon, C. A.(1997[1987]), "Sexuality", in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ed. L. Nicholson, New York: Routledge, pp. 158-180.
- McGlynn C., E. Rackley, and R. Houghton(2017), "Beyond 'Revenge Porn': 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Feminist Legal Studies*, 25(1), pp. 25-46.
- Melissa F., K. Franzblau, and M. A. Kennedy(2013), "Online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Albany Law Review*, 77(3), pp. 1039-1094.

〈보도자료 및 신문 기사〉

- 경찰청 보도자료, 2019.5.22, 「국내최대 성매매 포털사이트 '밤○○○' 집중 수사 중」.
- _____, 2019.7.9, 「국내최대 성매매 포털 「밤○○○」 개발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
- 『머니투데이』, 2019.9.18, "'밤의 전쟁' 통해 성매매 알선한 업자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79373>.
- 『문화일보』, 2019.6.4, "회원 70만 '밤의 전쟁' 정조준... "성매수남들 떨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0401031321313001>.
- 『중앙일보』, 2019.8.27, "'회원 수만 70만명'...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적발", <https://news.joins.com/article/23563352>.
- 『한겨레』, 2019.8.27, "경기남부경찰청,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검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7339.html>.
- 『KBS』, 2019.9.5, "[취재후] 성매매 포털 '밤의 전쟁'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9721>.

〈홈페이지〉

밤의 전쟁 시즌2, <http://bamwar.com>.

(논문 투고일: 2019.11.15, 심사 확정일: 2019.12.03, 게재 확정일: 2019.12.15)

〈Abstract〉

Expanding Sex Trade:

Pornography,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Lee, Na-Young* · Jung, Jihye**

The development of new ICTs and changes in neoliberal capitalism are transforming not only the nature of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but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offenders, victims, buyers, sellers and mediators. This paper aims to detail changes in the sex trade and sex industry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prostitution portal sites. Recent forms of the prostitution portal site in South Korea have led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perators, mediators, site users, consumers, and buyers, ensuring the sex consumer's accessibility to women and the efficiency of prostitution. In the chain of profit creation resulting from men's active involvement and mutual support, the illegality of prostitution is circumvented, and the women traded are subject to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exploitation, in addition to being exposed to violence such as illegal photography and personal exposure. In the end, as an interconnected network of prostitution, pornograph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he prostitution portal site has come to the forefront of feminist sexuality theory and practice.

Key words: 'prostitution mediation-review portal site', economies of affect,
pornography,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McSexualization

* Lea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